

Ⅲ. 고려의 등장과 발전

주제 15) 고려의 대외관계

학 교	
학 번	
이 름	

1. 9~10세기 동아시아의 정세



- ① 야율아보기에 의해 부족을 통일한 ()의 성장
 - 926년 한반도 북쪽 지역에 있던 ()을(를) 멸망
 - 일찍부터 연운 16주를 차지하고 있었고 중국의 혼란을 수습한 송나라가 이를 탈환하기 위해 거란과 전쟁을 벌여 (승리 / 패배)
 - ⇒ 송나라는 거란에 매년 세폐를 바치고 있었음
- ② 고려와 ()과의 관계
 -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거란과 (친선 / 적대)
 - ⇒ 이유:
 - 고려는 ()을(를) 내세워 영토 확장 모색
- ③ 고려와 송나라와의 관계
 - 고려는 송나라와 (친선 / 적대):
 - 송나라는 고려와 (친선 / 적대):

2. 고려와 거란과의 관계

◦ 원인: ◦ 경과: ◦ 결과:	◦ 원인: ◦ 경과: ◦ 결과:	◦ 원인: ◦ 경과: ◦ 결과:

※ 아래 만화를 일어난 순서대로 위의 내용에 붙여봅시다.



※ 고려와 거란과의 항쟁과쟁에 대한 역사자료 및 지도자료

소손녕: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소유인데 너희가 침범했다. 또 왜 우리와 교류하지 않고 송나라와만 친한가?"

서 희: "아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했기에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한 것이다. 우리가 너희와 교류하지 못한 것은 중간에 여진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 땅을 우리가 되찾아 성을 쌓고 길을 연다면 어찌 교류하지 않겠는가?"

양규는 거란군을 7번 싸워 모두 이겼고, 적에게 잡혔던 포로 3만 명을 구출했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화살이 다 떨어지고 군사들이 쓰러져가는 순간에도 적진으로 돌격했습니다. 시신에는 수많은 화살이 박혀 있었는데, 끝까지 활을 놓지 않은 채 서서 전사했다고 기록될 만큼 처절하고 용맹한 싸움이었습니다.

강감찬은 거란군이 돌아가는 길목인 귀주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치열할 때 갑자기 비바람이 북쪽에서 남쪽(고려군 쪽에서 거란군 쪽)으로 강하게 불어왔고, 고려군은 이 기세를 몰아 거란군을 몰아붙였습니다. 10만 대군 중 살아 돌아간 자가 겨우 수천 명에 불과할 정도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후 강감찬은 거란의 재공격을 우려하여 개경에 나성을 쌓고 북쪽 국경에 압록강에서 도련포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축조했습니다.

※ ()의 위치

3. 고려와 여진과의 관계

초창기 여진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며 조공을 바치기도 함.

여진이 부족을 통합한 이후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고려를 침공

()은(는) 여진의 기병을 상대하기 위해 ()을(를) 조직

여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진에게서 탈환한 지역에 () 축조

관리의 어려움과 ()이(가) 관직에서 물러나면서 ()반환

여진이 강성해져 () 건국 후 고려에 사대관계 요구 → 당시 고려의 실권자였던 ()이(가) 사대요구 (수용 / 거부)